

202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 원장 안철경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202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온라인 세미나를 시청하고 계시는 보험사 및 유관기관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그리고 정책당국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년 이맘 때 개최되는 보험연구원의 “전망과 과제” 세미나는 보험산업의 현 상황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보험시장을 전망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보험산업의 대표적인 경영세미나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올해 "2021 전망과 과제" 세미나는 예전과는 달리 온라인 행사로 진행됩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많이 바꾸어 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을 반추하고 2021년을 설계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은 빠질 수 없는 환경요인이 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 우리는, 신종바이러스의 확산이 경제환경과 보험산업의 지형을 뒤바꾸어 놓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21년 보험산업은 **대전환의 초입에 들어서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캄캄한 길목에 들어서는 만큼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보험산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동안

성장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4차 산업의 부상은 보험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산업의 지형이 다시 그려지면서, 산업재편 과정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유를 부리며 미루어 왔던 숙제를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성장저금리의 지속, 인구 고령화, 비대면 문화의 확산, 재판분리의 심화 현상은 전통적인 상품과 채널구조로는 더 이상 보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이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관리서비스, 디지털보험, 온라인 채널 혁신 등 **신 사업모형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또한) 금융지주사들의 보험회사 인수와 빅테크/핀테크 플레이어들의 보험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보험산업의 경쟁구도는 급속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당국**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내부통제시스템 등 **규제체제를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독당국은 **업계와의 소통을 확장**하여 변화하는 기술환경과 업계, 소비자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언택트 시대에 맞는 **소비자 편익 개선과 새로운 수요창출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던
2020년 올해 보험산업을 되돌아보면
시중 유동성 확대,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그리고
보험산업의 위기극복 노력으로 이례적인 성장을 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올해의 일시적인 요인들이 희석되면서
과거와 유사한 성장추세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1년 보험산업에 대해 저희 연구원에서는 ‘**사업재조정(Rebuilding)**’과
‘경쟁과협력(Copetition)’ 이라는 2가지의 도전과제를 제시합니다.

현재 보험산업은 **탈성장 사회**로 진입하여
과거와 같은 **사업모형으로의 회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모형을 조정하고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데이터 기반 예방 사회로의 전환과
환경·사회·지배구조, 즉 ESG경영을 강조하는 국제적인 흐름은
내부통제 및 비재무적 역량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보험산업은 **디지털 생태계에서 경쟁 및 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경제금융환경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보험산업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체질개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202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가
보험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대전환의 시기를 앞둔
보험산업의 방향성을 고민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
며,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